Name (you can leave as anonymo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

*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분이며 나를 위해 제일 좋은 것을 바란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Does God really love me? I want to know and experience that God really loves me. I want to believe that God is good toward me, and simply wants the best for me.

🡪 자세한 설명/comment in blank spaces

* 정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드립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인정하며 용기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Am I really accepted just as I am? I feel so lacking. I want to be able to walk in full confidence that I am ok just as I am
* 용서를 받았다고요? 나는 너무 죄인같고 아무도 못 받아 줄 사람같은데, 계속 실폐만하고 죄의식과 후에만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용서를 받은건가요? 나의 과거의 실폐들에 이젠 묶여있기 싫습니다 – 정말 사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 내가 이젠 완전히 용서 받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Forgiven? I feel so sinful and unacceptable. I keep messing up and am full of guilt and regrets. Am I really forgiven? I don’t want to be bound by my failures – I want to know what it means to really be alive – to know that I’ve been fully forgiven.
* 은혜로 들어감 – 정말 하나님이 저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걸으시나요? 정말 저를 인도하시나요? 저의 삶은 복잡하고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사랑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싶고, 저를 언제나 인도하신 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Undeserved privilege – Does God really consider me His child? Does God really walk with me? Does He really guide me? I feel so lost and confused with my life. I want to feel secure in God’s love and know that He is guiding me every step of the way.
*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 – 저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는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실 때 응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sozo를 받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Sharing in His glory – I want to learn to join in with God as He does amazing things. I have been attending church and going through the status quo, but I feel I lack in seeing what He is doing, and responding to His invitations for me to join. I want to see others around me be “sozo”ed by the amazing things that God is doing, and I want to take part in God’s doing that.
* 저의 삶은 너무 복잡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쉴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일로 인하여 쉴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더 알아 보고 싶습니다.  
  I feel so restless in my life. Can I really rest? What does it mean to rest? I want to learn what it means to rest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 *믿는자마다* 라고 했어요 – 믿는 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믿지요?  
  It says *anyone who believes* –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How can I believe?
* 부흥회에 말씀은 제가 자라면서 배우던 것들과 달랐습니다.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This message was different from the way I was taught. I’m confused about the following:
* 저는 하나님에게 “sozo” (구원)을 저의 삶에 이렇게 받고싶습니다:   
  I want to be “sozo”ed (receive salvation) in the following things in my life:

My experiences in preparation for and during “The Love That Matters” revival conference…  
Things we can do better, things we did well, encounters with God, etc. What did you like? What didn’t you like?  
중요한 사랑 부흥 집회를 준비하면서, 도중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잘한 것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등등. 어떤 것이 좋았나요? 어떤 것이 싫었나요?

What do you want Jesus to do for you?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나요?

Honestly, why do you feel you attend church? What would you like to obtain as a result of attending church?  
진심으로,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어떤 결과가 있길 바랍니까)?

Anything else you want to share? Comments?   
더 나누고 싶은 것들 있나요? 다른 생각들?

Prayer requests (if you did not mark as anonymous)  
기도 제목 (무명으로 적으시지 않으셨으면)

